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코사무이



글 채지형 여행작가, <http://www.traveldesigner.co.kr>

여름이 되면 누구나 꿈꾸는 풍경이 있다. 흰칠한 아자수 아래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살랑 불어오는 남국의 바람을 코끝으로 느끼는 모습. 조금은 나른한 표정을 지으며 책을 읽는다가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물장난을 하는 풍경.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 태국 남부에 자리한 아름다운 섬, 코사무이가 그곳이다. 어느 섬에서나 느낄 수 있는 낭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코사무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혜의 자연과 편안한 숙소, 세계의 여행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숨쉬는 섬, 코사무이로 떠나보자.



‘깨끗한 섬’이라는 뜻의 코사무이

코사무이의 ‘코’는 ‘섬’, ‘사무이’는 ‘깨끗하다’이라는 의미로, 코사무이는 한마디로 ‘깨끗한 섬’이라는 뜻이다. 태국의 수많은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방콕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다. 코사무이는 하얀 모래 해변과 산호초, 코사무이 섬의 아이콘 중 하나인 코코넛 나무들이 열대의 파라다이스, 그 상상 속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럽인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는 여행지라, 어디에 가든지 아시아 여행자보다는 유럽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푸켓의 느낌이 화려하다면, 코사무이는 자유로움이 먼저 다가오는 섬이다. 길거리 상점이나 레게바, 펌을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마음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느낌이 든다. 낮에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밤에는 열정적인 바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하루가 금방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코사무이의 대표적인 해변은 섬 동쪽에 있는 차웡비치.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수놓아진 백사장인 7km나 이어져 있으며, 바다색은 그야말로 에메랄드색이다. 바닷물은 맑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심도 그리 깊지 않아 마음 놓고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친구들과끼리 간다면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와 같은 신나는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에 좋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을 마시고 싶다면, 코사무이 최대의 변화가인 차웡 비치 로드로 나가보자. 차웡 비치 로드는 비치를 따라 뻗어있는 해변도로로, 이곳에서





는 쇼핑몰과 슈퍼마켓, 레스토랑, 마사지가게, 여행사 등 여행자에게 필요한 대부분을 구할 수 있다. 밤이 되면, 코사무이의 자유로운 밤 문화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한번 둘러봐야할 곳이기도 하다.

에너지가 넘치는 차웁 비치도 좋지만, 좀 더 아늑하고 조용한 해변에 가고 싶다면 보퓏 비치를 가보는 것이 좋다. 보퓏은 아담한 어촌마을이 있는 운치 있는 해변으로, 휴양을 하고 싶은 이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연인과 손 잡고 한가롭게 걷기에도 좋고 혼자 멍하니 어슬렁거리어도 좋다.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면 코사무이의 코코넛으로 직접 만든 비누가게, 향긋한 커피향이 나는 카페, 저렴한 맥주가게들이 하나둘 이어져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도 만날 수 있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라이브러리 호텔

코사무이를 여행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멋진 리조트에 있다.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리조트, 신혼여행객을 위한 풀빌라 리조트 등 다양한 리조트들이 있지만, 이중에서도 ‘디자인호텔 그룹’에 속해 있는 라이브러리 호텔은 더 특별하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이 호텔은 도서관이 컨셉.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 방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필이 달린 ‘페이지 키’를 준다. 호텔에서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가라는 호텔 주인장의 의도인 것.

그 자체가 작품처럼 보이는 도서관에 가면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을 볼 수 있다. 옆에는 DVD를 가져다 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호텔에 묵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책과 DVD를 빌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호텔 수영장 주변에는 다들 수영복을 입고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진정한 휴양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모습이다.

테마파크같은 **코사무이** 공항

코사무이 주변에는 가볼만한 곳도 많다. 섬 남쪽에 가면 수만 종의 나비를 볼 수 있는 나티안 나비정원과 17m의 큰 불상이 있는 빅 붓다 사원, 우리나라의 남근석과 비슷한 흰파 흰야이, 원숭이 극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유있게 코사무이를 찾았다면, 매달 음력 보름달 밤에 풀문 파티로 유명한 코팡안도 가보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에너지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이빙을 좋아한다면 코파오를,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싶다면 40여개의 섬이 모여 있는 앙통해양국립공원을 둘러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 코사무이에서 챙겨봐야 할 곳은 바로 코사무이 공항이다. 야자잎으로 만들어진 아담한 지붕아래, 고풍스러운 선풍기가 돌아가는 모습은 공항이 아니라 작은 테마파크 같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 코끼리열차에 오르는 순간, 코사무이에서의 여행이 자신만의 작은 동화가 되어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끊임없는 감탄사를 만들어 낸다. ☺

